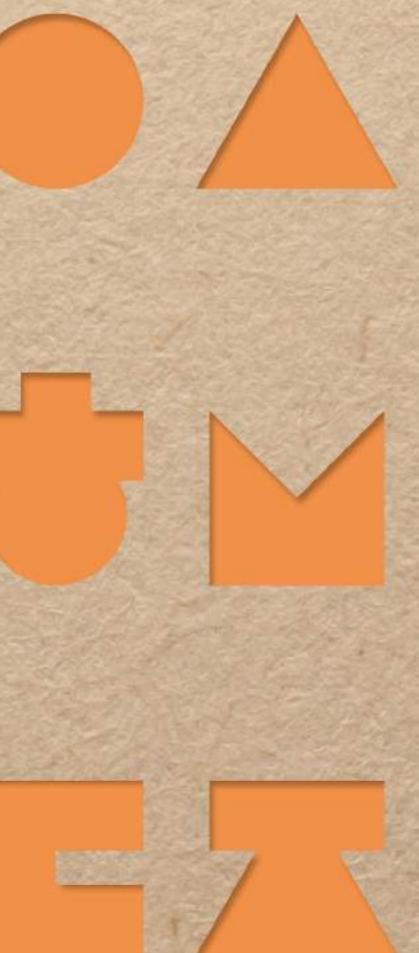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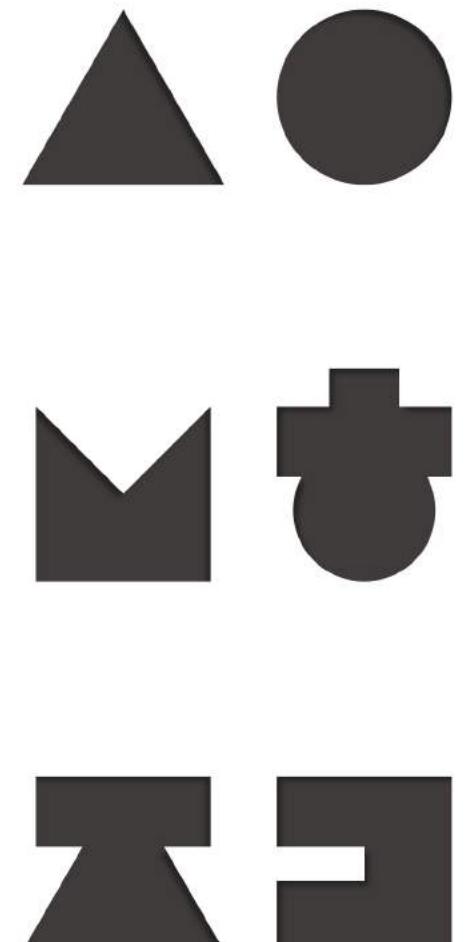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vol.28



ZOOM-IN
기획대담
돈 없어서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과 출산?

ISSUE & VIEW
도심 속 청년 여성 감소.
우리 동네는 어떨까?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연 2회 함께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행인 | 대전광역시장
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편집위원 | 주혜진·김민영·김형석·최성은·허용주 편집 | 김성곤
발행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디자인·제작 | 디자인스튜디오 203 대전

CONTENTS

ZOOM-IN 돈 없어서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과 출산?	2
ISSUE&VIEW 도심 속 청년 여성 김소, 우리동네는 어떨까?	8
GENDER TALK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 본질과 역할 임신이 '대형사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여성의 삶을 들여다봐야 저출산 해법이 보인다 연애와 결혼의 온도차? 뜨거운 결론, 둥거	12 14 16 17
함께하는 생각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생 대책, 우수 사례를 엿보다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135개로 늘어나	18 21
이야기 하나 두려두려 이런 일이	22
이야기 둘 여성계 활동 이모 저모 김감유소식	26 28
문화와 젠더 신여성과 모던걸을 기억하다	30
WHO RUN THE GROUND? 우리의 동분서주는 세상을 바꾼다	34

돈 없어서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과 출산?

오 ? 둘 렙



우리나라는 인구 관련 통계 작성 아래 최초로 30만명대(35.8만명)의 출생아 수를 2017년에 기록했다. 합계 출생률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국가로 진입한지 17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악의 출산율에 따른 비관적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앞다퉈 내놨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저출생에 대한 고민보다 바로 당장의 삶에 대한 고민이 더 크고 무겁다고 얘기한다.

“
노동시간을 줄이고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최저임금을 높여서 보완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

이 대담은 우울한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마주한 청년들과 전문가들이 저출생 현상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지역사회에서 청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최인아 _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우리나라 출생률이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국가라고 합니다. 출생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저출생 문제가 장시간 노동 및 고용, 주거 불안, 젠더 불평등에서 비롯한다는 판단 하에 '2040세대 삶의 질 제고'로 정책방향을 바꾸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저출생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현숙 _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인 자체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체계와 사회제도를 바꾸는 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꿨다는 것에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다영 _청년잡지「BOSHU」에디터

바뀐 정책 방향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 하는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기존에 나왔던 정책의 보완정도인데, 청년으로서 바뀌어서 좋다고 느끼는 큰 매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신혼부부나 일반적인 가정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특히 제게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정기현 _대전광역시 시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로 펼치는 노동정책, 그러니까 노동시간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기존에 있던 기업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만큼 저항이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늘 힘들고 저임금을 주는 소외되는 일자리에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분들의 노

동시간을 줄이고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최저임금을 높여서 보완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1차적으로는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현숙 _박근혜 정부 때는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하고 신혼부부는 주거 입지나 환경 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미혼 청년 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라서 입지가 중요한 반면에 신혼부부는 아이를 낳고 살아야 하니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같은 집단으로 묶어서 같은 단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이 구분이 됐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재섭 _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저는 한 가지를 바꿔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정책 특성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요. 주거 정책이 나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LH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정책의 수혜자인데요. 이 정책이 출생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 또는 사람들의 삶의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김다영 _얼마 전 보수에서 청년들이 대전에 남아 있지 않는 이유를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디자인 관련 일자리를 구직 사이트에서 찾으면 서울에는 여러 디자인 회사나 전문적인 업체가 많은 반면에 대전에는 단순한 인쇄업체만 뜨는데 그 수도 한 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 기한 부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대전을 떠나게 되는 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나눠져 있는 정책에 대





“
왜 연애를 안할까?
돈 없어도 연애는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못하고,
안하는 것이더라고요.”

최인이

”

“
원인규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책도 잘못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왼쪽다리를
수술하는 형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천현숙

”

해서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출산을 할 생각도 없는 입장이라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주거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예상도 실제로는 모든 청년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할까요? 현실에서 나대로 다양하게 살고 싶지만 만들어져 있는 제도나 인식 자체는 그렇지 않죠. 뭔가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그 틀 안에 맞춰지는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것 같아요.”

김재섭_ 청년의 필요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나눈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28세 정도의 남성 청년이 결혼을 전제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거정책일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죠. 흔히 청년들이 결혼을 전제로 주거와 소득과 여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볼 때 장기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마련해나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예요. 한국사회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규정하는데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이 전부 똑같은 환경과 조건,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책설계자들은 청년을 20대 초중반의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로만 보고 있는 거죠. 대상을 너무 좁게 보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천현숙**_ 기성세대는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만 정말 출생을 담당해야 할 청년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과거에 비해 삶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으나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은 평균 자녀수가 1.5명 이상이 되고 희망자녀수도 2명 이상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과거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저는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사회적 흐름이 출생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까지 출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보육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고,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생에 관련된 정책이 원인규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책도 잘못 나왔다고 생각해요.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왼쪽다리를 수술하는 형태였다고 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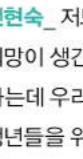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이 보이면 자녀를 낳는 문제가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닌데, 부모세대와는 다른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저출생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어떤 문제가 될지에 대한 인식은 공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재섭_ 과연 앞으로의 사회는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회인가요? 그리고 노동력과 출생은

바로 연결이 되는가요? 저는 사실 역으로 말하면 코리안 드림 같은 사회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주노동자들을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출생률을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공포감 조성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국민연금은 연기금제도이지만 조세 제도처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미 다른 나라들도 조세정책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 경쟁력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에 대해 묻고 싶어요. 출생과 삶의 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정기현**_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싶은데 꿈꿀 수 없는 사회의 현실이 희망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A포세대, 올포세대 이런 자극적인 기사도 나오는데, 포기라는 것은 희망을 잃었다는 의미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너무나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사회진출이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사회전체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들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기성세대가 좋지 않은 사회를 물려주면서 출생의 부담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이**_ 저도 주거를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는 복지에 대한 논의가 다른 논의들을 너무 가려버리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보다도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중요하고 문제제기가 필요해요. 특히 청년 당사자들이 많이 제기 해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현_ 저희 세대는 미래를 크게 걱정 안했잖아요. 졸업하면 1~2년 안에 취업을 했어요. 저희들은 취업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활 자체를 즐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규직 되는 과정이 너무 길고 어려워요. 너무 힘든 과정을 지금의 청년세대가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결국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천현숙**_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왜 연애를 안 할까? 돈 없어도 연애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못하고, 안하는 것이더라고요.”

천현숙_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가치관이 그만큼 달라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진 것을 이해해야 하죠. “우리는 안 그랬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김재섭_ 기성세대는 어떻게 연애했어요? 아마 저는 지금과 크게 달랐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가난한 연애도 있었을 것이고 여유로운 연애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최저 연애비’라고 해야 할까요? 그 비용이 높아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상품화 됐죠.”

제도나 인식 자체는 그렇지 않죠. 뭔가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그 틀 안에 맞춰지는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것 같아요.

김다영

“

최인아 청년 사이에서 '돈 없으면 연애를 못 한다'는 것은 딱 와닿는 느낌인거죠?

김다영 네. 기본적으로 하루 데이트를 하면 1인당 5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봐야죠. 밥 먹고 커피마시고, 공간 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공원 안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김재섭 그래서 커피를 30분 이내에 마시고 나와야 환승이 되는 거죠(웃음) 그렇지 않으면 버스비가 두 배로 들어가니까요. 매일매일 3시간씩 앉아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세 시 간씩 얘기할게 뭐가 있겠어요. 삶이 비슷한데요.

정기현 서울 중심의 문화 수준, 가치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미 서울 수준으로 눈높이가 높아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장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춘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연애에 대한 용기도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쪽팔리는 것보다 포기 하는 게 낫지.' 이런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김다영 연애보다 다른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 때는 연애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 같아요. 대학교도 학점 채우려고 수업 많이 듣고 수업마다 필요한 과제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것만 해도 버거웠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공부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본 적도 있어요.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병행하지만 이러다가 골병들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최인아 사실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시절에 아르바이트는 필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필수가 된 거 같아요.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보면 되게 힘들고 지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인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유가 없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출생도 문제지만 청년들이 나이 들었을 때의 건강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문

제가 될 거 같아요. 요즘은 연애할 때 서로 동등한 거 같은가요?

김다영 그렇지 않아서 데이트 폭력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 불평등은 여전히 많죠. 연애할 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 불평등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20대 여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주 잠깐 대학 졸업하자마자 모 사립대학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직원을 뽑을 때 우선 비정규직으로 뽑고 재계약을 할 때 정규직 전환이 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비정규직 중에서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정규직이 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남성이었어요. 비정규직에 여성이 더 많은데 정규직으로 되는 것은 남성인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조직 계층의 위로 갈수록 여성 없는 현실, '이런게 한국사회 표준 직장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었어요. 이런 환경이라면 여성이 계속 일하는 것도 어렵겠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것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기현 공공기관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치외법권 지역이 있죠. 법과 제도가 통하지 않는 곳 그게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민주주의도 없고 평등도 없고, 재벌갑질 계속 보시지만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력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곳이죠. 직장 내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출산,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기업에 대한 규제와 엄단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해요.

김다영 여성이 어느 일자리나 다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서울이 대전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일자리 차이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문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어디에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거 같아요. 일자리 수보다는 환경의 문제.

정기현 노동시간을 줄여서 대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 3만불 시대는 제조업이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서비스업으로 가는 과정인데, 서



가난한 연애도 있었을 것이고 여유로운 연애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최저 연애비'라고 해야 할까요? 그 비용이 높아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재섭

”

비스업이 안착하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비워지는 일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야 하고요. 적게 일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자리가 생기는 과정이 순환되어야하는데 아직은 그 순환이 시작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혼란스러운거죠.

김다영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의 기조는 좋은데 실제 정책을 보면 여성들은 많이 결혼하고 출산 많이 하고 집에서 돌봄 노동해라 하는 기조의 정책인거 같아요. 아이 돌봄이나 출산휴가도 남성에 대해서는 의무가 전혀 없고, 아이 돌봄이나 육아수당 제도쪽으로만 너무 포커싱이 되어있어요. 더 돌봄 노동을 하게 만드는 정책 이라는 느낌?

김재섭 돈을 줄테니 맘껏 육아를 해 같은 뉘앙스죠. 저는 여성의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이 가정 내에서 젠더 평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경제적 협상력이 생기니까요. 복지 혜택으로 소득이 증대된다고 할 때 가구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정책이 필요해요.

최인아 최저임금 인상이나 시간 축소도 좋은 정책이지만 독일 사회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니까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 정책을 해줘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 육아 관련 정책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기업도 말씀하셨지만 남성들도 육아 휴직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천현숙 국가가 복지에서 포괄해야 하는 집단이 저 소득층과 청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쪽방 거주자, 고령자, 노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들을 다 관리해야하는데 그것이 오로지 국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전체가 다 같이 협력하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거 같아요. 기업과 대학 등의 역할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기현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 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부 개인한테는 지원해줄 수 있어도 회사에게 강제로 시간을 줄여서 유연근무를 하게 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지원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만들어지면 되겠지만, 그것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아직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여력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천현숙 직장이나 가정이나 젠더 평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양육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태어난 아이든지 사회가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정착되려면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젠더 평등을 먼저 구축해야겠지요.

최인아 기본적으로 젠더 평등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된 곳이 많지 않지요. 그렇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급하게 모든 걸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 과부하가 걸릴 뿐이죠. 지금은 차근차근 그렇지만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도 다양한 여성, 보육,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계획하고 시행 중에 있으니 저출생 정책을 평가하는데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시계열 통계로 예측해보는 대전시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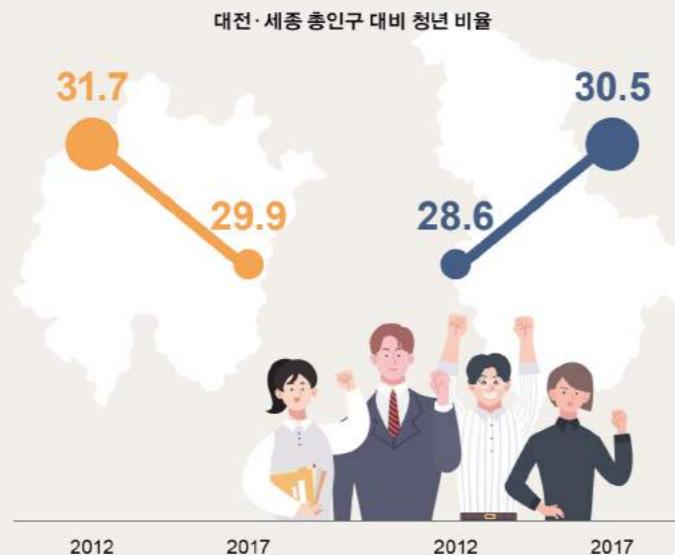
도심 속 청년 여성 감소, 우리 동네는 어떨까?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대전여성가족통계에 따르면
대전시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대비 청년 여성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역소멸지수'에 따르면 대전의 동구와
중구, 서구의 일부 지역은 '소멸 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가 되었고 대덕구도
최근 3년간 일부 지역에서 청년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 소멸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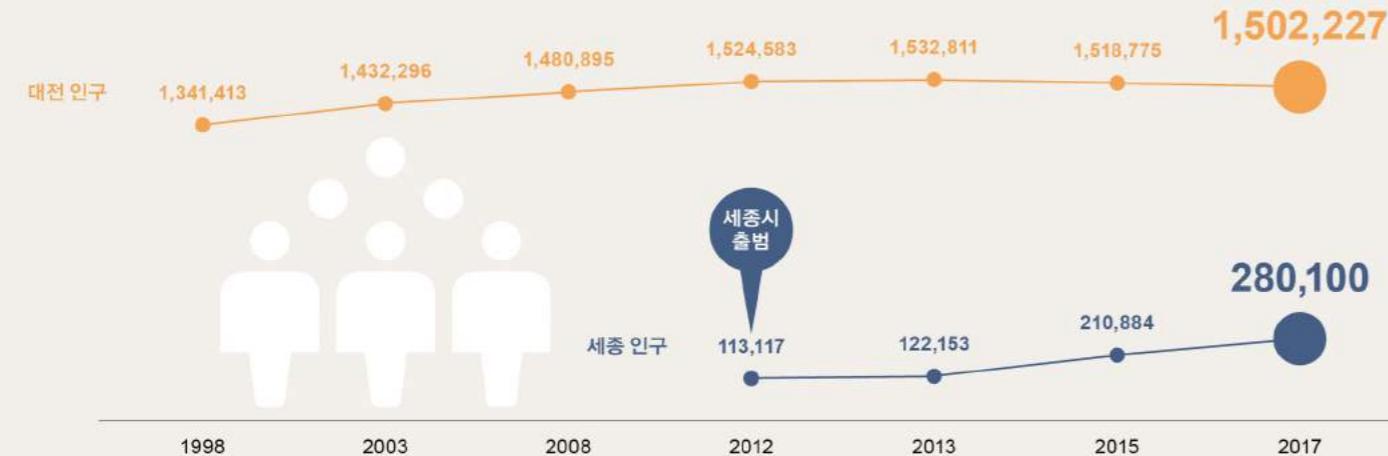
대전시 총인구 추이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고 인구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에 출범한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전의 총인구 대비 청년 비율은 2012년 31.7%에서 2017년 29.9%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세종의 총인구 대비 청년 비율은 2012년 28.6%에서 2015년 30.9%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에 30.5%로 약간 감소하였다.

- 1)연말기준,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외국인 제외
 - 2)주민등록법 개정(09.10.2)으로 종전의 무단출입신고제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거주불명 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 통계에 포함하여 공표함.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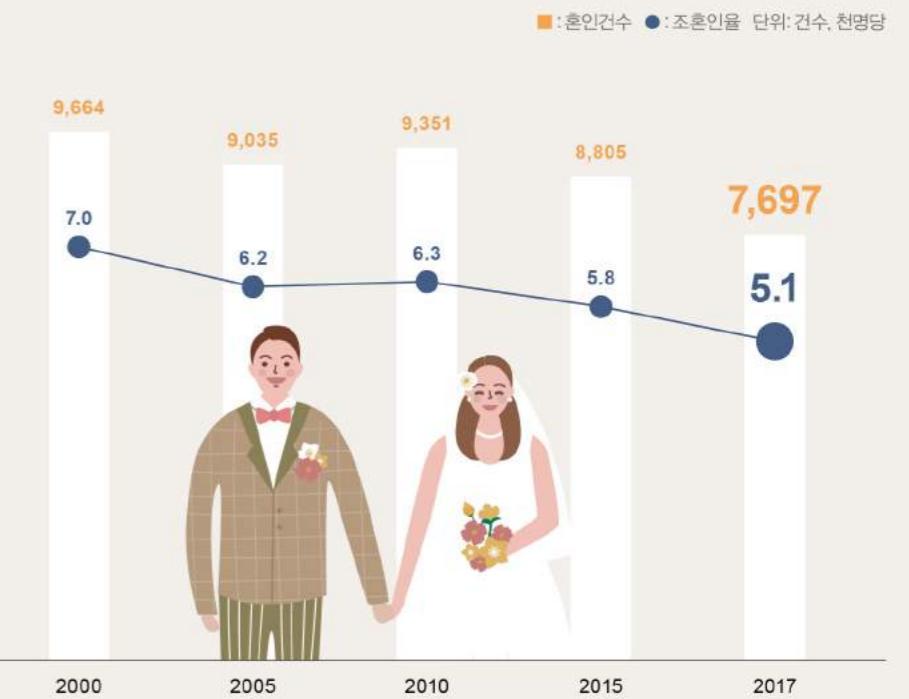


대전·세종 총인구 추이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대전광역시의 2000년 9,664건이었던 혼인건수가 2017년 7,697건으로 감소하였고, 조혼인율도 2000년 7.0에서 2017년 5.1로 감소하였다. 2017년 조혼인율은 6개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중 4번째로 낮은 조혼인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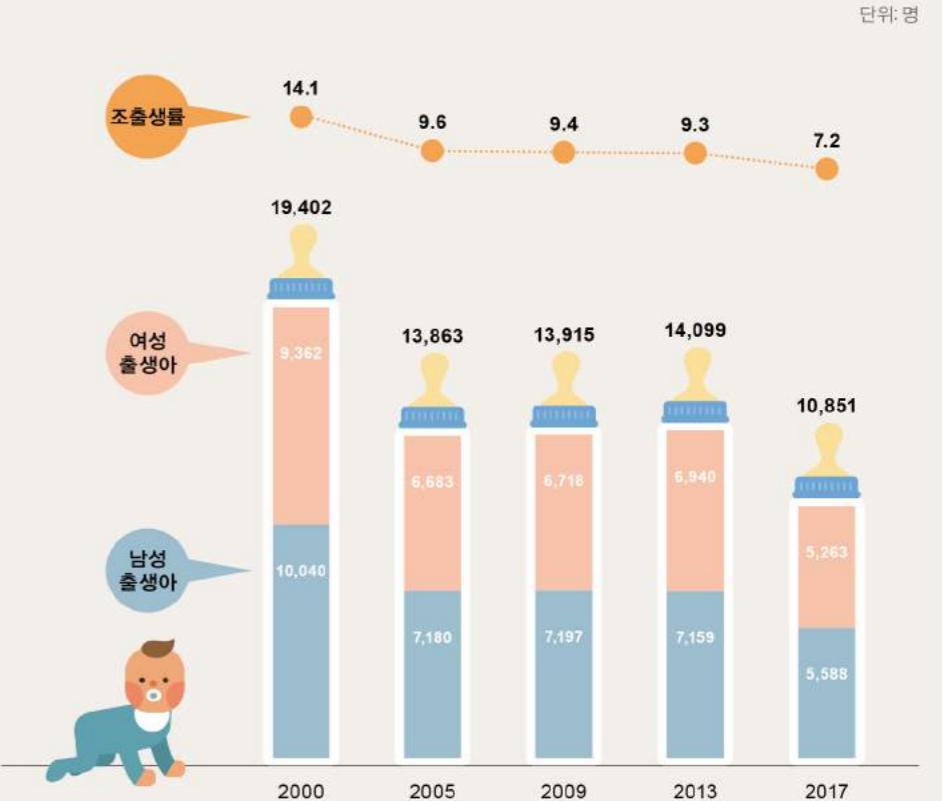
1)조혼인율=혼인건수/해당 연도 인구*1000,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2)국외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인구동향조사'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대전광역시 출생아수는 2000년 19,402명에서 2017년 10,851명으로 줄었으며, 조출생률도 2000년 14.1에서 2017년 7.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출생률의 감소폭은 2000년 대비 6개 광역시 중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총 출생아수는 국내 거주 출생아수만을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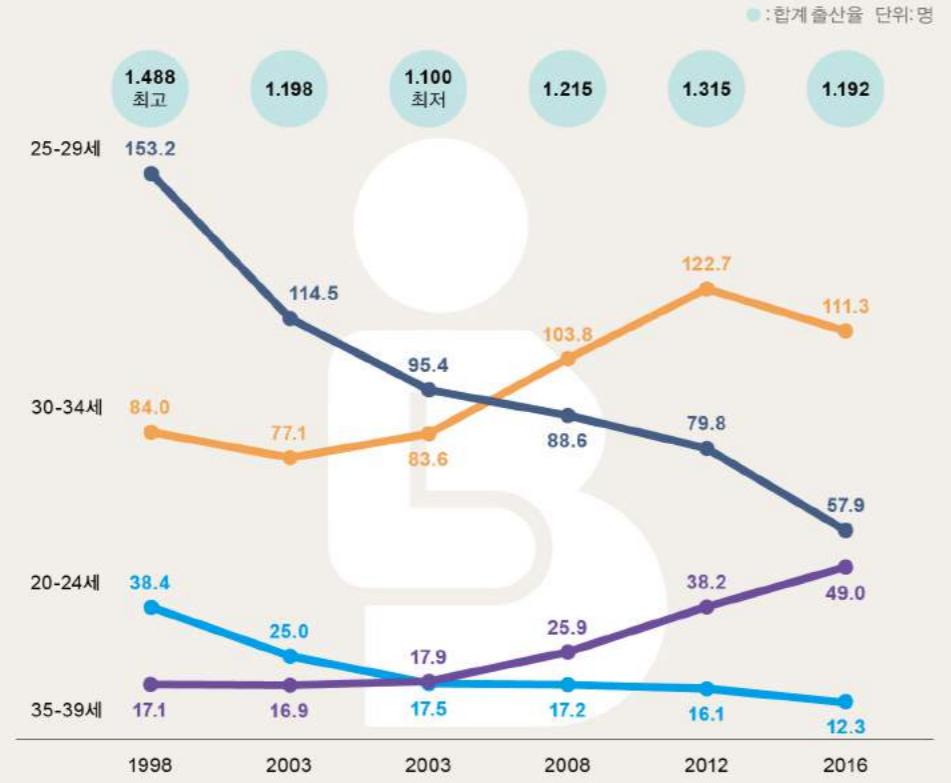
2)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수/당해 연도의 연장 인구*1000

*주민등록연장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장(年央)개념으로 재작성하여 제공되는 자료로 평균인구의 개념으로 출산, 사망, 아동 등 각종 인구동태를 산출시 분모인구로 활용됨(예시 : 2014년 주민등록 연장인구=2014.1.1일과 2014.12.31일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인구동향조사'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대전광역시의 합계 출산율은 2000년 1.48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192명으로 0.296명 감소했다. 2002년에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감소한 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1.3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2012년 단 한번 뿐이었다. 한편 2000년에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연령대는 25세~29세였으나 2007년부터는 30~34세의 연령대에서 출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의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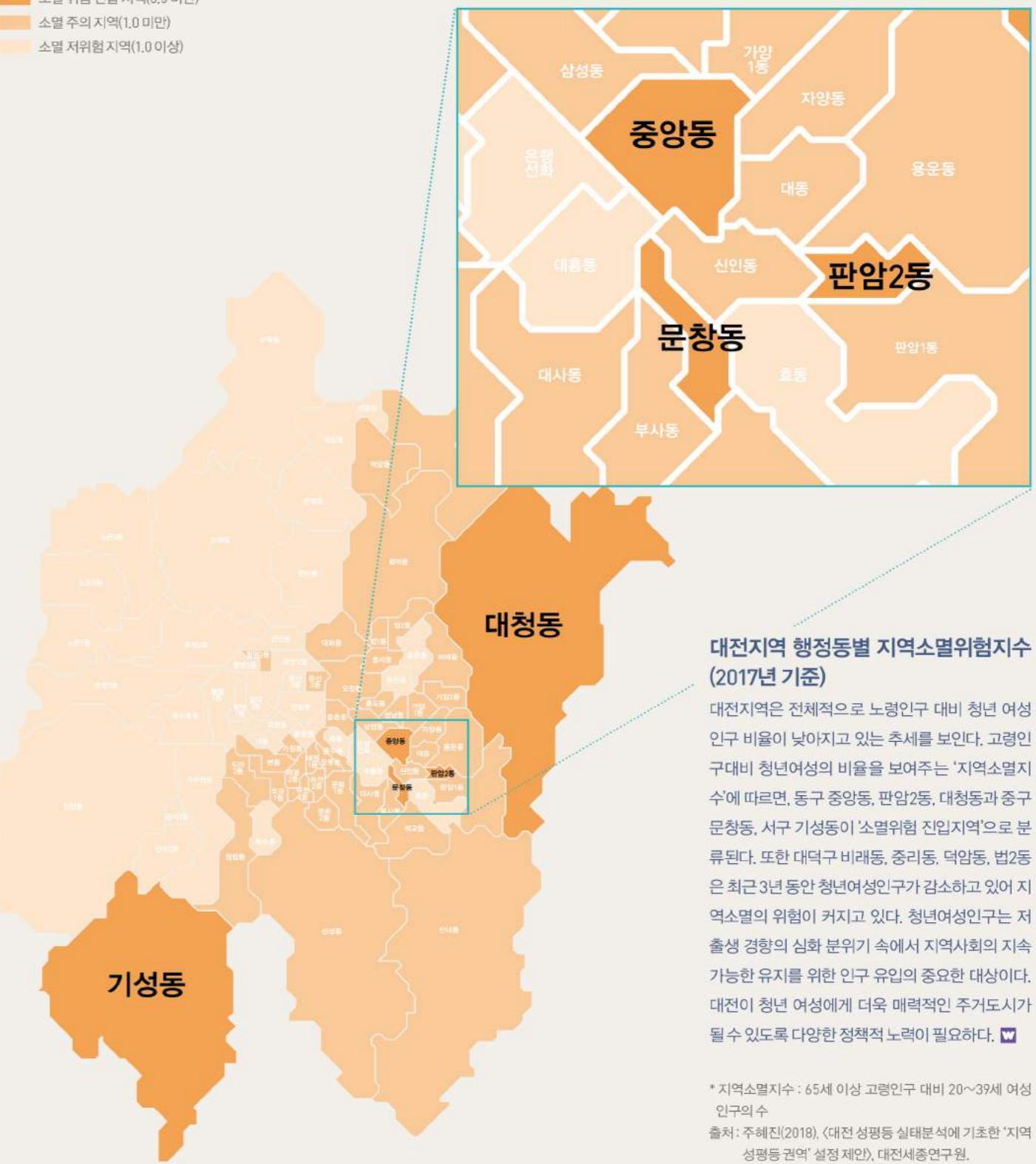
대전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대전광역시의 총부양비는 1998년 39.3에서 2013년 34.6으로 감소하나, 2017년 35.1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유소년 부양비는 1998년 32.3에서 2017년 18.8로 감소하였으나, 노년부양비는 1998년 7.0에서 2017년 16.2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노령화지수는 1998년 21.6에서 2017년 86.2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건수, 천명당

- 소멸 고위험 지역(0.2 미만)
- 소멸 위험 진입 지역(0.5 미만)
- 소멸 주의 지역(1.0 미만)
- 소멸 저위험 지역(1.0 이상)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 본질과 역할

글·이삼식_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부설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일하는 부와 모 누구라도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중요하다.

요즈음 매월 태어난 아이 수가 간신되고 있다. 물론, 1970년 출생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라는 말과 함께이다. 금년 합계출산율(법률혼 여부에 관계 없이 여성 1명이 평생 낳게 될 평균 자녀수를 의미)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부와 모가 2명이므로 이들 사이에 2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도 있으므로 인구학적으로 약 2.1명)를 두어야 인구가 증가하거나 줄어들지 않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미 오랫동안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노동력을 공급하는 연령층(인구학적으로 15~64세로 생산가능인구로 칭함)도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될 것이다.

저출산대책의 흐름

인구가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되면 국가나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되고, 개인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문제들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은 국가나 지자체의 입장과 다를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는 사회 전체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하여야 하나, 개인은 사회 전체 차원보다 각자가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자녀의 수를 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들이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국가나 지자체가 전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합적인 출산 수준과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저출산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가 등이다.

사실 지난 10여년간 추진된 저출산대책들은 한국적인 고유한 방법이라기보다 오래 전부터 서구 사회에서 출산장려정책(pronatalist policy), 가족 정책(family policy), 여성정책, 고용정책 등 다양한 목적 내지 관점으로 도입한 것들이다. 물론 이들 정책만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목표로 하는 출산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들의 희망 자녀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경제상황, 사회·문화, 가치관, 시대적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개인이나 부부의 희망자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수를 실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책은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지도 희망

자녀수가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출산대책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정책의 내용과 향후 과제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대책들을 지원 수준 내지 목적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돌봄지원정책, 사회문화정책, 결혼지원정책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은 특정 한 목적 없이 자녀양육 비용을 주로 현금 형태로 보조해주는 수당, 세제감면, 크레딧 등을 포함한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 및 출산크레딧(자녀수에 따라 일정 기간의 연금 납부를 인정해주는 제도)과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한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적 지원정책은 자녀양육가정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보육 등 특정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필요한 부문에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충분한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원 정책은 프랑스 등에서 이사수당, 교육수당, 주거수당, 대가족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과 더불어 출산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주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일정한 상황에서 자녀수가 증가하면 전체 양육비용이 증가하여 다자녀가정은 빈곤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자녀가정들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재원으로 실행하여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부와 모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time)을 제공해주기 위한 정책이다. 주된 방법으로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제도, 근무시간/일 등을 개인의 희망에 따라 조정해주는 유연 근무제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들은 서구 사회에서 오래 동안 실시한 정책들과 비교하여 적어도 외형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이나 고용보험 가입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는 급여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용을 꺼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남성들의 육아휴직 이용 정도가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희망자녀수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하는 부와 모두가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중요하다.

돌봄지원정책은 주로 보육, 유아교육,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들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돌봄지원정책은 적어도 양적으로 서구사회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경험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여성고용률과 출산율 모두 적정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결혼지원정책은 서구사회와 달리 법률 혼에서 대부분의 출산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문이다. 이 정책은 청년층의 일자리, 주거 안정 등 주로 거시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효과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내에서 학력 간 고용(고용기회, 임금, 승진 등) 차별을 철폐하는 시장적인 접근과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는 문화적인 접근 등이 긴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정책영역들은 각자 출로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 예로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에 돌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저출산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의 희망자녀수(2.2명 수준)가 실제로 실천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요컨대, 모든 정책영역들이 충분하게 발전되어 상호 균형을 이루 때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마음 놓고 각자가 희망하는 자녀수를 실제로 낳아 양육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회 전체를 위한 인구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개인 희망과 국가(지자체) 목표 간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임신이 '대형사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글 · 이은정_노무법인 정음 대표노무사



“
개업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경력단절'이 두려워서.
”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이 글을 시작해야겠다. 저출산과 경력단절은 100%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말에 모든 여성이 공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을 하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 여성이라면 아마 80% 이상은 가슴 깊이 공감하지 않을까? 이번 글의 주제를 들었을 때, '그래 이번에는 그냥 내얘기를 하자' 싶었다.

저출산과 경력단절의 상관관계

필자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취업대란이 시작된 터라 필자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취업을 바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입사를 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는 말을 진정 이해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지 셀 수도 없다. 하지만 늘 이번 달 카드 값을 생각하면서 심장 바깥으로 튕겨나갈 것 같은 마음을 애써 붙잡고 하루하루 버티었고, 그러한 날이 반복하다보니 어느 순간 직장상사의 아래개그에도 커다란 웃음을 지으며 엄지 척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얼 사회인이 되었다.

자연스레 나이가 들어 결혼을 앞두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리얼 사회인 생활의 중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맞벌이가 너무 당연한 시대였고, 나도 일하는 것이 당연한 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임신을 알았을 때 적지 않은 나이었기에 다행이고 기쁜 마음이 먼저였다가 이내 든 생각은 '큰일이다.

'어떡하지?'였다. 당시 필자의 신혼집은 세종이고, 직장은 서울이어서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을 오가며 출퇴근 하는 것이 생각보다 고단했기에 개업을 염두하던 때이기는 했으나, 개업을 한다 해도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할 창업초기를 임신과 출산이라는 대형사건과 함께 할 자신이 선뜻 들지 않았다. '개업은 접고 육아휴직을 할까?' 이 고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른다. 주변에서도 모두 육아휴직을 권했다. 하지만 필자는 결국 개업을 택했다. 개업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경력단절'이 두려워서.

공인노무사 자격을 따고 3, 4년의 커리어를 힘들게 쌓았던 터라 일을 쉬는 동안 그동안 수련한 것을 잊게 되고, 현장감이 무뎌질까봐 두려웠다. 그러면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었다. 육아휴직을 했었던 동기 노무사들의 한숨과 후회, 경고가 있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절대 일을 놓지 말라고. 다시 돌아올 때 2배로 더 힘들다고'

그래서 필자는 친정엄마 찬스를 약속받아 임신증에 개업을 했고, 출산 전날까지도 현장을 누비며, 산후조리원에서도 급한 일들을 처리하였다. 주변에 위킹맘들이 많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너끈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너끈히 해낸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필자는 경험으로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건 너끈히가 아니라 '간신히'였던 것이다.

엄마가 되는 것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인지 (물론 기쁨과 행복도 상응하지만) 알 수 있었다면 나는 출산을 선택했을까? 모유수유 중이었을 때, 불어오는 가슴의 통증을 참으며 누구보다 바쁘게 일을 하고 서둘러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면, 친정엄마 품에 안겨 몇 시간을 보냈던 아이가 필자가 모유 수유를 하자마자 스르륵 잡이 드는 것을 보면서, 일을 하고 와서 지칠 만큼 지쳐있던 내 몸이 애잔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참 무어라 설명해야 할지.

Work and Life Balance

28개월을 지나 무력무력 자라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벌써부터 그 시절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둘째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아니오'를 말한다. 워킹맘에게 임신·출산·육아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이제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일과 육아 중한 가지만 하는 것은 자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

필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이슈와 함께 관련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으며 일·가정양립(워라밸)을 지원하고 있다. 정말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래본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 글을 마친다.



육아휴직 신청자격 확대 (2018.5.29.시행)

개정 전 1년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 청구 가능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기간 연차부여 (2018.5.29.시행)

개정 전 연차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를 개정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고 복직 후 연차휴가를 보장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2018.7.1.시행)

기존 상한액 150만원, 둘째 자녀일 때 200만원에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첫째,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

난임치료 휴가 확대 (2018.5.29.시행)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연간 3일 이내"로 부여(최초 1일은 유급).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고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 가능.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2018.1.1.시행)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2018.1.1.시행)

기존 통상임금의 60% 지원에서 통상임금의 80% 지원으로 변경

여성의 삶을 들여다봐야 저출산 해법이 보인다

글·곽효원_충남대학교 4학년



“
한국 여성정책은 모두 육아와 출산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의 삶은 들여다볼 생각이 없어 보인다.”

10월 22일 강서구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전남편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10월 24일에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에게 여성과 그녀의 일가족이 살해당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던 게 이유였다. 10월 25일에는 별거 중인 부인 직장에 찾아간 남편이 야구 방망이로 부인을 폭행했고,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각목으로 폭행했다. 29일에는 이 조직했고, 11명의 여성이 불합격됐다. 당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여성 직원은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고용율은 M자 그래프를 그리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떠맡는다.

여전히 남성연대는 굳건하다. 여성이 매일같이 죽어나가고,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별 일이 아닌 모양이다. 남성연대에게 페미니즘은 우스운 것, 멍청한 짓으로 취급된다. 매 순간 ‘군대는 남성만 간다’는 문장을 들고 역차별만 운운한다. 이 외종에도 여성은 죽어간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죽는다. 살아남더라도 여성이라는 죽纱는 삶의 매 순간을 고되게 한다.

사회는 남성들의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감싼다. 성범죄 가해자 남성에게 ‘살다보면 남자가 그럴 수 있지’라는 자비는 결코 여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성범죄 피해자 여성에게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그러니까 여자가 조심했어야지” 또는 “살다보면 성추행은 다 당해 너무 예민하게 굴지마” 뿐이다. 면접에서 출산 계획을 묻고, 출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은 어쩔 것이냐고 따지고, 출산하겠다면 일은 언제 할 것이냐고 따져묻는 건 일상에 가깝다. 한국가스 안전공사는 남성군필자를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연애와 결혼의 온도차? 뜨거운 결론, 동거

글·이해곤_뉴스토마토 정치경제부 기자



“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빼울 때 오히려 보다 합리적인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동거’. 설불리 밖으로 내뱉을 수 없지만 사랑을 경험해본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본 말이다. 물론 동거가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동거를 시작할 때는 아직 에너지가 가득한 ‘사랑’이라는 연료가 들어갔으리라.

이런 ‘사랑이 가득한’ 동거의 천국은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올랑드 프랑스 전 대통령은 부인이 아닌 ‘동거녀’와 30년을 살았다. 동거를 하면서 자녀도 4명이나 낳았다. 올랑드와 동거녀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미혼부·미혼모’인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올랑드는 한 여기자와 ‘바람’을 했고, 자녀들의 ‘엄마’인 동거녀와 헤어졌다. 이후 이 여기자도 올랑드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기면서 등을 돌렸다. 대통령의 사생활이 이렇게 ‘화려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프랑스만 그럴까. 이제 한국도 점점 변해가는 모양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56.4%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동거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물론 세대별로 차이는 있다. 2030세대는 70%가 동의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여전히 30%만 동거를 찬성하고 있다.

세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남녀의 동거를 부정적으로만 보던 인식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감추고 싶은 비밀’까진 아니게 됐다.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혹은 아무런 대책 없는 철부지들이 하는 게 동거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제 동거도 공공연히, 몇몇이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결혼과 관련한 흥미로운 통계 결과는 또 있다.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8.1%로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통계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 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사람이 46.6%,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도 3%에 달했다. 이 같은 통계들만 보면 결혼은 50대 50, 혹은 결혼 아니면 동거라는 재밌는 결론도 내릴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계약을 맺은 커플은 배우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결혼한 부부와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팍스(PACS)’라고 하는데, 굳이 계약을 맺고 팍스 커플이 되지 않은 동거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따로 분류해 인정할 정도다.

이제 한발짝 나아가보자. 앞서 올랑드 전 대통령은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4명의 자식을 낳았다. ‘결혼’이라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면 불완전했을 자녀들에 대한 처우가 프랑스에서는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같은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동거에서 법적인 인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9년 동거 커플과 미혼모를 법률로 인정했다. 이후 출산율은 유럽에서 최고치인 1.96명까지 치솟았다. 2015년 1.24명, 2016년에는 1.17명으로 줄었다가 작년 1.05명까지 출산율이 떨어진 한국이 보기에 프랑스는 ‘다산국’이다. 동거를 사회적 태두리 안으로 가져온 결과다.

이제 한국도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넘어 법적인 보장까지 이뤄지면 어떨까. 무겁디무거운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빼울 때 오히려 보다 합리적인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형태의 결혼과 가족, 어쩌면 지금 결혼에 겁먹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해법이 될지도 모른다. ■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생 대책, 우수 사례를 엿보다

글 · 김성곤_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왔기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여성과 청년의 삶'에 중점을 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및 사회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

행정안전부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생장려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으로 유지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각자의 개성을 살린 저출생 극복 시책을 하나씩 내세울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더 이상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두 사업의 3년간 내용을 정리한다.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2016년~2018년)

2016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까지 3년간 총 37건의 우수 시책이 선정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3년간 경기도(시군구 포함)가 총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5건, 전남과 전북이 각각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광역시로 보면 서울, 광주, 대구, 부산이 각 2건씩, 세종과 인천, 울산이 각각 1건씩 선정되었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선정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경진대회는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침신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수시책 선정 수는 해당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저출생 극복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7건의 우수 시책을 내용별로 분류를 해보았다. 하나의 사업 아래 다양한 세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였다. 분류를 하는 목적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어떤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분류 할 수도 있다.

공동 돌봄을 위한 공동체 운영이나 육아 나눔터를 운영하는 방식의 사업이 8건, 생애 주기에 따라 저출생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일자리, 임신, 출생, 양육 등 주민 중심의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방식의 사업이 7건, 산모와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이 7건으로 나타났고 출생 장려금, 양육수당 및 미혼 청년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매칭펀드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수당 지원 정책이 5건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내 기업체 및 대학과의 연계, 아빠의 육아 교육 프로그램,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및 결혼과 출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있었다.

과거에는 출생정책, 육아정책, 일자리 정책, 보건 정책 등이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었으나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몇몇 세부적인 사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임신에서 출생, 양육과 일자리까지 지역 주민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담겨있다.

그러나 출생과 육아 지원 사업에 몰려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출생 이후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출생의 주체인 미혼 청년들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결혼과 출생을 어렵게 여기지 않도록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내용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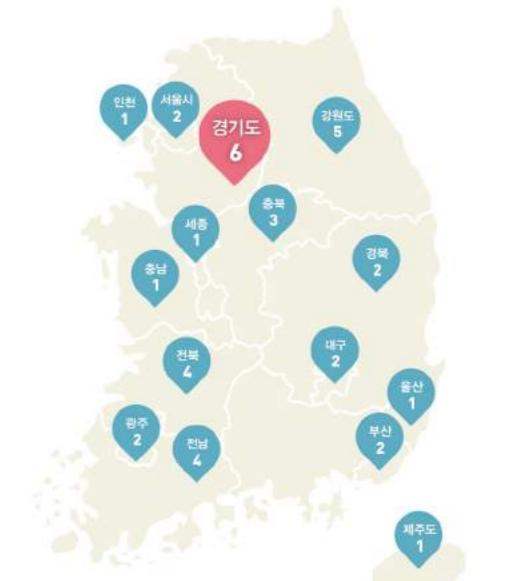
단위: 건

	돌봄 공동체 운영	8
	종합인프라 구축	7
	의료 서비스	7
	장려금 및 수당	5
	일가정 양립 지원	4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축	3
	인식개선	2
	청년 주거 지원	1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6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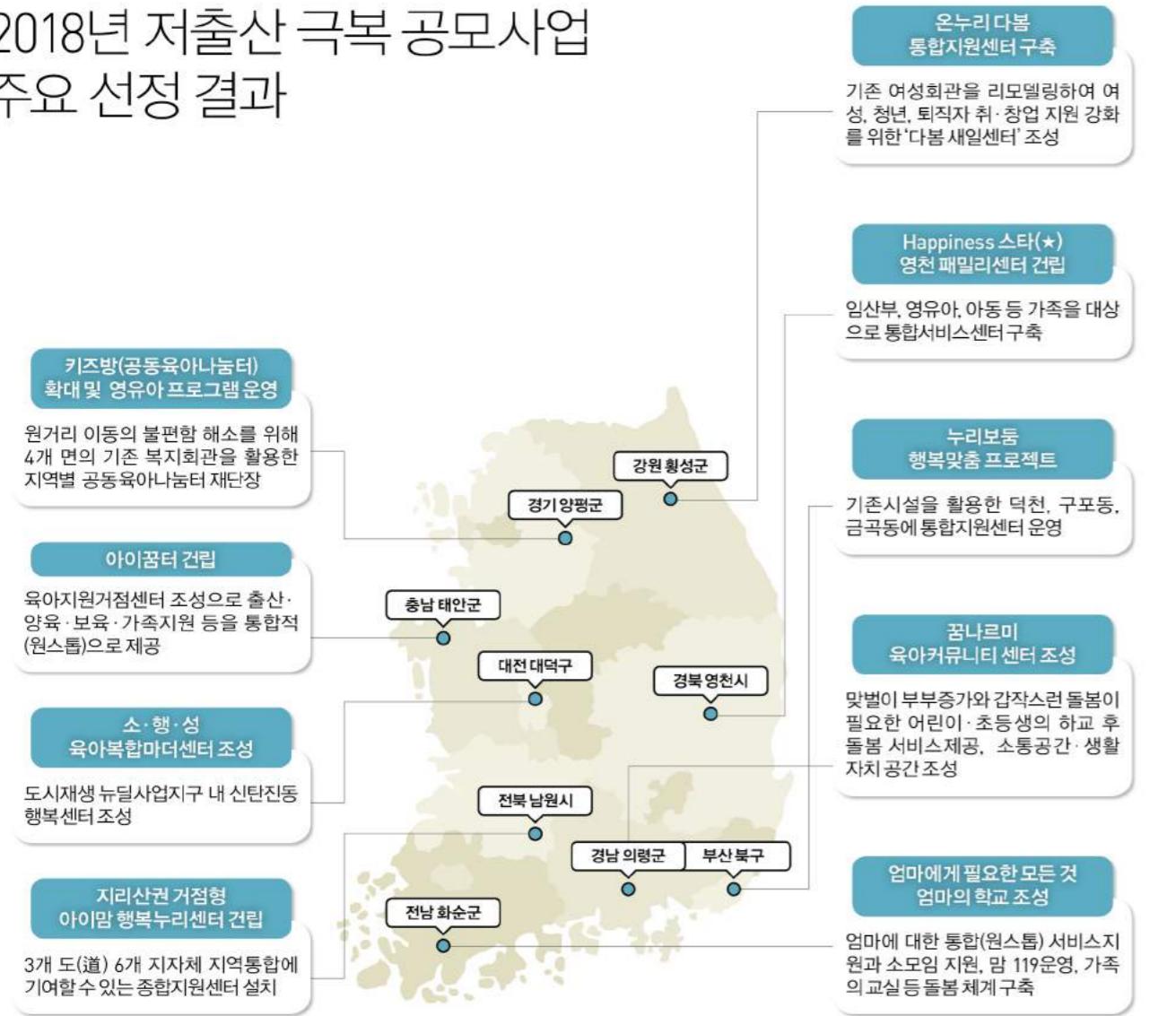
최근 3년간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선정 지역

단위: 건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6년~2018년)

2018년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주요 선정 결과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2016년~2018년)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또한 2016년에 처음 실시되어 올해로 3회째 실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별 교부세를 지원했다. 2016년 5개 지자체, 2017년 9개 지자체, 2018년 9개 지자체의 사업을 선정하여 총 103억원을 지원했다.

우수시책 경진대회와 다른 점은 공간 조성과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것이다. 즉 일자리, 주거, 임신, 출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주기를 융합하는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통합·운영하는 사업이 중심이다. 선정된 선도지자체의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여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가능성이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대전에서는 2018년에 대덕구의 "소·행·성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구 내 공공 청사인 신탄진동 행복센터를 조성할 때 마더센터, 육아센터, 장난감 도서관, 공동 육아방 등을 운영하는 육아복합마더센터를 설치하고, 이후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주변 지역(청주시 현도면, 문의면 등) 주민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135개로 늘어나

대전광역시는 민선 7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아이 낳고 키우는 2040 세대의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변화하게 될 새로운 대전의 보육환경을 미리 알아본다.



-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제도 확산**
 -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인증기관 확대를 위한 기업 안내 및 홍보
 - 2018년 대전시 269개 인증(전국 2,802개) 50개 기업 신규 신청
 - 대전형 노사 상생 모델 '좋은 일터' 사업과 연계
- 산모와 아이가 행복한 공공산후조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권 지원(바우처) 확대
 - 건강보험료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 대전시 전체 출산가정(2019.1.1.~)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18년 35개→'22년 135개)
 - 2022년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30개소 확대 및 차액보육료 100% 지원
- 0세아 전용 공공어린이집 건립**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0세 전용 어린이집 2개소 신규 건립
 - 기존 어린이집 28개소를 0세 전용으로 지정 운영
- 보편적 복지 위한 3~5세 무상 보육**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만 3~5세 아동 7,397명의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센터 운영**
 -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기관 안내 및 아이돌보미 양성
 - 120 대전콜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아이돌봄기관 2개, 24시간 보육시설 2개, 지역아동센터 144개와 연계
- 출산 장려지원금 매년 10% 증액**
 - 첫째아 출산 장려지원금 30만원 신설
 - 둘째아 30만원 → 40만원
 - 셋째아 이상 50만원 → 60만원
- 공공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건립**
 - 대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내 장난감 도서관 기능 보강
 - 자치구 신규 설립 추진



대전광역시

『성인지 정책 담당관 신설』을 시작으로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 쓸 것

대전시는 민선 7기에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도시 대전을 구현」을 비전으로 세우고 《복지자리 창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대전시민의 의료복지 기본권 향상》,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구현》,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분야별 추진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을 통해 성인지 정책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사회전반에 대한 성평등성을 제고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과 창업 지원,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제도 확산,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여성이 마음편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한다.

2018년 하반기, 대전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제30회 대전광역시 여성대회의 개최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지 표명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다짐을 결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전용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서구 복수동 주민센터 건물에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여성종합커뮤니티센터에는 회의실과 토론장, 북까페, 품앗이 양육시설 등 여성 전용 공간이 마련되며 리모델링을 거쳐 2019년 6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올해도 14개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9년간 총 124개 기업을 발굴하였다. 여성친화기업은 관내 30인 이상 기업 중 여성 근로자가 20%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 수 20인 이상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개선실적과 남녀평등처우 실적, 모성보호제도 도입,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등 세부항목을 평가해 선정한다. 대전시는 협약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여성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를 개선해 여성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끌어올리고자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행복해야 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성이 행복해야 한다"며 "아직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어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구

나눔냉장고 확대로 마을 공동체 회복



동구가 사회적 약자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눔냉장고·확대사업」이 결실을 맺으며 점차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동구 신인동에서 이웃사랑 향기 가득한 「나눔냉장고」 8호점이 문을 열었다. 신인동 나눔냉장고는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 확산과 마을 공동체 회복을 기원하는 주민들의 바램을 담아 「情가득 나눔냉장고」라는 따뜻한 이름을 붙여 주었다.

지난해 4월 용운동에서 처음 시작 후 1년 반 동안 「나눔냉장고」 사업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환경·경제·복지에 우수한 주민주도형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나눔냉장고」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과 같이 한 끼 먹거리를 이웃과 나눈다는 취지로, 주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식재료를 기부하고 누구나 한 끼 식사를 위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곳간'이다. 처음에는 소수의 후원자가 조금씩 채우던 것이 이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신개념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구에서는 「나눔냉장고」 명칭을 동별 특성을 살려 ▲ 신인동은 「情가득 나눔냉장고」, ▲ 산내동은 「사랑 나눔냉장고」, ▲ 가양2동은 「행복채움 바구니」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8개 동이 동참 중에 있고, 앞으로 동구 16개 전 동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따뜻한 정이 넘치는 여성친화도시 동구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중구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 장려금 '최고',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만들다



중구에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201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가정복지과'를 유지해 오던 담당부서 명칭을 '여성가족과'로 변경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계획」 수립과 공무원 대상 이해교육을 시작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교육 지원과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등 여성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다.

11월 8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무원 대상 '여성친화도시 이해 교육'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염인섭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여성친화도시의 개념 이해와 함께 도시환경적 분야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적용방안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교육이 되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최초 실현과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최고 금액으로 지급하는 정책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 가고 있다. 효문화 중심도시와 함께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중구가 기대된다.





서구

함께 행복한 만남과 나눔의 장, 여성친화 벼룩시장



서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2018 대전서구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함께 행복한 만남과 나눔의 장, 여성친화 벼룩시장'으로 응모·선정되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벼룩시장을 운영하였다. 1인 가구, 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참여형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벼룩시장 운영을 통해 주민 간의 소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였다.

여성친화 벼룩시장은 일상의 분주함에서 다소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토요일 오후(12~16시)를 택하여 시청 옆 어린이 놀이터에서 5차례(6.23, 7.14, 9.8, 10.13, 10.27) 운영하였다. 수세미 뜨기, 투호놀이, 페이스페인팅, 신발 농구 등 체험 부스와 부침개, 커피, 음료 등 부담 없는 가격의 먹거리 제공을 하여 벼룩시장이 단순히 물물교환의 장소만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가족 간의 여가를 즐기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경제 및 자원 재활용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여성친화 벼룩시장을 통해 서포터즈단은 단순한 도우미 활동에서 벗어나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해보는 경험을 통해 지역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위원 상호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유성구

스마트 안심빛글로 안전한 유성구 골목길



유성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스마트 유성 안심존' 지역 내 12개소에 '스마트 안심빛글' 설치를 완료했다.

안심빛글은 어두운 벽면이나 바닥 등에 LED 빛을 투사해 이미지를 보여주는 셀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한 영상장치로, 다양한 안심 문구 표출을 통해 구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어 안심귀간길 조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성구는 2017년에 시범 구축한 여성안심존(봉명동, 궁동 일대) 지역의 어두운 장소에 있는 가로등, CCTV, 하천조명에 다양한 문구의 안심빛글을 설치함에 따라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심귀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빛글 문구 중 일부에는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힘내요 당신, 당신은 늘 최고예요! ▲오늘도 파이팅!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을 늘 응원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걸어보세요 등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가족친화적이고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유성구는 관내의 모든 주민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심빛글 설치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전한 유성으로 만들 계획이다.



대덕구

#with you “알면 알수록 안전한 대덕구”



대덕구는 지난 9월 20일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한 3개 사업(여성안심 거울길·여성안심 지킴이집·여성안심스마트스위치 설치) 및 불법촬영 근절 점검·캠페인 전개를 위해 대덕경찰서, 한남대학교, 안심지킴이집, 스마트스위치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대덕구는 2016년부터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원격 점등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스위치 설치를 1인 여성가구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대덕구는 사업 계획 및 홍보 등을 총괄하고, 대덕경찰서는 범죄발생 우려지역 추천 및 취약지역 순찰강화와 공동주택소유주 미리시트 부착 동의를, 한남대학교는 3개 여성안심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와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안심지킴이집과 스마트스위치업체는 운영 및 현장관리를 맡기로 하고 신속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대덕구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10월 14일에는 제18회 대청호 마라톤대회장에서 참가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불법촬영 OUT, 유포 STOP, 클릭 ZERO'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사회에 '불법촬영은 허락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몰래카메라가 설치되면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생활 속으로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 20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한눈에 두런두런



유성구

대덕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대전YWCA

대전YWCA의 2018년은 다른 시기보다 더 특별하다. 청소년 운동을 시작한지 70주년이 되었고, 대전 YWCA 70주년 기념 화보집이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10월 29일에 70주년 화보집 발간 기념식과 함께 후원의 밤을 진행하였다. 오후 6시부터 유성호텔 스타 블룸에서 200여명의 후원자를 모시고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을 주제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 의 공연과 성악가들의 혼성중창 공연, 대전YWCA 70주년 동영상 상영, 샌드 아트 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1946년 창립하여 72년간 꾸준히 지역 여성의 해방과 평등 운동을 전개해 온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리였으며, 지난 70년 동안 그 시대 시대마다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주목하고, 돌보고, 살리는 일을 해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대전 여성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길 소망하는 자리였다.

또 11월에는 청소년 회원인 Y-틴들이 모여 대전 YWCA 회관에서 「100UP-역사를 기억하며(Back up), 100년을 향해 올라간다.(100up)」의 뜻을 담고,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사진전을 11월 30일까지 개최했다. 1948년 호수돈여고, 대전여고 25명의 청소년으로 시작되어 2018년 현재 7개 동아리, 약 200여명의 회원들이 매년 청소년 문제와 이슈를 가지고 캠페인과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하면서 사회를 인식하고 주체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 ① 70주년화보집 발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 ② 우리 몸을 위협하는 생활 속 ‘독성탈출’ 환경교육
- ③ 청소년운동 70주년 기념사진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018년 7월 5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대전여성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문화를 기반으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드는 공감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개최된 이 행사는 1부에서 황희정 감독의 ‘큰일은 여자가-대전 여성 정치도전기’ 다큐 영상을 통해 지방선거에 도전한 여성 정치 활동가들의 모습을 소개했고, ‘처음부터 그런건 없습니다’의 저자 김양지영, 김홍미리씨와 황희정 감독이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통해 페미니즘과 성평등에 대한 쉽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양성평등주간과 대전여성문화제를 축하하고 지지하는 메인 기념식과 함께 「심청이 놀 부를 만났을 때!」공연과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의 축하공연, 주제발언 「여성, #Me Too! 릴레이」가 진행되었다. 마당극단 ‘좋다’는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 개인의 자존감, 빈부격차, 고용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학적으로 해석한 마당극을 선보였고, 가수 지현은 공연 사이사이에 아픈 경험의 솔직한 고백으로 이날 모든 이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주제발언 시간에서는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각각 ‘문화로 읽는 여성’, ‘세상에는 남자 주부도 있습니다’, ‘대중가요 속 여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관점으로 여성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문화제

대전여성단체 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 사회 및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여성 복지사업 및 권익연구사업, 건전가정육성 및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단체상호 간 친목도모 및 사업 협조,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소비자 보호운동 등 단체발전에 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협의회의 다양한 활동 중 하나로,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여성지도자 리더십 개발교육을 10월 18일에 실시하였다. 여성 지도자 및 대전시여성단체 협의회 15개 단체장 및 회원, 실무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여성 리더의 자질과 능력향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었다. 실질적 리더십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내의 위상을 제고하여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단체 간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구축하고, 활성화된 사회활동 기반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슈를 통한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개발교육



감감 有 유소식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특별기획포럼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대응모색

7월 5일, 2018년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특별기획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성희롱 개념 및 대응방식 등에 대해,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이 올해 대전시와 함께 수행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철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원), 이주현 부센터장(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이영세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이은주 실장(대전여민화 고용평등상담실)이 토론자로 참가했으며, 최해경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과 여성 중견 관리자급을 피해신고처 겸 1차 상담자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젠더콜로키움 빛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신상옥의 「지옥화」에 나타난 신식민주의 근대성과 젠더 민족주의

8월 16일에는 한성대학교 황정현 교수의 발표로 전후 1950년대의 한국사회의 모습과 젠더 민족주의의 실태를 신상옥 감독의 영화 「지옥화」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황정현 교수는 1950년대 신식민주의의 형성배경과 생활상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한국적 근대성의 형성과정을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적인 '현모양처'와 성적 대상인 '양공주'로 이분화되어 억압받는 여성의 시대상을 소개했다.

한국 20대 여성의 이성교제 및 성행동을 통해서 본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2018년의 마지막 젠더 콜로키움이 12월 11일에 '한국 20대 여성의 이성교제 및 성행동을 통해서 본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열렸다. 덕성여자대학교 김은정 교수는 20대 여성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역은 사랑과 섹슈얼리티라고 전제하면서 개인화된 사회로 인해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변화하는 성의식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면서 자신만의 행동양식을 만들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김 교수는 결혼과 분리된 연애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들은 복잡한 사회적 인식과 규범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고 있다고 했다.



대전세종정책엑스포 2018 &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도시 재생에 젠더를 입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과 세종의 도시병원이다." 대전세종정책엑스포 2018의 시작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하태정 대전시장은 축사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도시병원"으로서 대전과 세종의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0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대전세종정책엑스포 2018」을 개최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세종정책엑스포 2018의 일환으로 "도시 재생에 젠더를 입히다"는 특별기획포럼을 열었다.

도시 재생 사업 추진과 여성참여 특별기획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강릉시 도시 재생 사업의 현황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 김만재 교수(강릉원주대학교)의 발표와 대동하늘마을 도시 재생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진주 위원장(대동아름다운마을만들기 위원회)의 경험담 발표, 그리고 여성친화형 도시 재생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염인섭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자들과 청중들의 열띤 토론 및 질의가 있었다.



2018년 성 주류화 전략실천 모니터링 최종보고회

젠더 관점에서 풀어보는 도시 재생과 여성 참여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옮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해보는 '성주류화 전략실천 모니터링'을 2012년부터 7년째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전시 3개 지역 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핵심 국정과제이자 대전시 및 자치구의 역점사업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점에 뉴딜사업의 주요 전략으로 다뤄지고 있는 주민참여를 젠더 관점에서 접근하고 시민과 함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2월 17일 개최된 최종보고회에서 모니터단은 도시재생사업이 특정 주민공동체나 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연령별 다양한 위치의 여성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사업 추진주체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단순한 참여를 넘어 여성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신여성과 모던걸을 기억하다

글 · 김인희_인문학강사, 프리랜서

'신여성' – 개화기부터 쓰여진 이 말은 이후 1920년대부터는 '모던걸'이라는 호칭으로 바뀌면서 식민지 조선 땅에 유행했다. 이른바, 이 신여성은 천지가 뒤바뀐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등장한 일군의 젊은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1910년, 수십여 년 간 끈질기게 진행된 일본의 침략 끝에 조선왕조는 멸망하고, 조선의 땅과 백성은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에 들어갔다. 우리는 이 시절을 우리 역사의 참담했던 한 시절로 기억한다.

“

최근의 근현대사 연구자들에게 '개화기의 여성혐오'라는 지적을 들을 정도로 이 시기 신여성–모던걸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 기간은 공교롭게도 한국이 근대화 시절을 맞이했던 시기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타의에 의한 근대화. 일본은 식민지 병탄 과정에서 전통왕조인 조선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이후 왕조가 사라진 조선 땅을 지배한 것은 개화된, 즉 근대화된 일본이었던 것이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한국의 근현대사 중 이 시기가 유독 도드라지는 까닭은, 아마도 이러한 일본의 침략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전통사회를 해체하고 근대화된 국가를 만들어갈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주요한 하나의 문화적 기표로서 등장했던 '신여성–모던걸'에 대해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전통왕조인 조선왕조는 엄격한 '남녀유별' 사회였다. 동서고금의 모든 전통사회가 그랬겠지만 조선 역시 신분제와 연동될 만큼 남녀의 구별과 차별이 엄격한 사회였던 것이다.(경국대전의 형법전에는 사족의 여인으로서, 여행을 한 자는 장 100대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을 만큼 조선왕조는 여인의 사사로운 집밖 외출조차 엄금하는 사회였다) 여성에게는 그 어떤 사회적인 기회도 발언권도 없던 사회에서 갑자기 이런 기회가 열린(것처럼 보이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됐을 때, 그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이나 압력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당시 지식인들이 여성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일제로 상징되는 제국주의, 혹은 문명개화로 상징되는 서양문화가 밀려드는 그 시기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개화의 시기를 놓치고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의 운명을 진심으로 통탄해 마지않았고, 이를 타개하고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확실히 이 시기의 여러 문헌들에서는



부인(표지화_노수현) · 개벽사 · 1922년 7월



여성, 창간호(표지화_안석주) · 조선일보사 · 1936년 4월

“

해외 유학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1920년대를 전후하여 '신여성'이라는 용어가 '모던걸'이라는 말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적인 시선에서 심상치 않은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안석주 · 여성선전시대가 오면 · 조선일보 · 1930년 1월 12일



1930년 여름 · 조선일보 만문만화 · 백화점 쇼핑에 열중하는 여학생들을 풍자

국권병탄과 함께 열린 개화의 시기에, 모든 조선의 남녀인민들이 지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떨쳐 일어나기를 외치는 열렬한 언사들이 보인다. 아마도 당시 지식인들은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구국의 자매'가 되길 바랐던 것 같다.

사실 여기까지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가득하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남녀노소 대동단결하여 문명 개화를 하자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부터 일본을 비롯한 중국과 미국 등 해외에 유학하여 선진 문물을 배우는 여성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였다. 바로 이들 해외 유학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1920년대를 전후하여 - '신여성'이라는 용어가 '모던걸'이라는 말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적인 시선에서 심상치 않은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여성이 모던걸로 대체되면서 보이는 첫 양상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당시 유행하던 잡지들과 신



문화 같은 언론에 실린 칼럼들은 개화한 여성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방탕한가, 혹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당시 신여성=여학생) 공부는 안하고 치장에만 신경 쓴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의 소비행태를 우려하는 글들이 수차례 실리곤 했다. 최근의 근현대사 연구자들에게 '개화기의 여성혐오'라는 지적을 들을 정도로 이 시기 신여성-모던걸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대체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



침 든 남성과 당당한 모던 걸 · 잡지 '별건곤' · 1933년 9월호 표지
나혜석 · 자화상 · 1928년

신여성들이 외쳤던 남성과 동등한 성적 자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주장들은 상당히 파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뿐 와닿지 않는 얘기들로 여겨졌다. 대부분 빈곤에 시달리는 서민 대중에게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로 여겨졌던 것이다.

”

확실히 처음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이 등장했을 때 당시 지식인들(주로 남성들)은 이들을 열렬히 환영했었다. 그들이 바란 것이 개화된 남성의 유통한 동반자가 되어줄, 개화된 여성들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뜻밖에도 여성들은 남성들의 바람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았다. 여성들은 마침내 자신들에게도 남자와 같은 사회적 기회가 열리기 시작하자 그들의 독립적인 자아를 내세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 여성들에게 문명개화란 어떤 것으로 여겨졌을까? 그 것은 바로 하나의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인간, 남성과 동등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남성들은 혹은 사회는 여성들이 유능한 '남성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이같은 독립적인 자아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이런 여성상에 여성들이 순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들은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 반발했고, 결국 신여성들은 개인적인 유명세를 치르기 위해 이르렀다. (최악의 경우 화가 나혜석의 사례와 같은 가정적 윤리의 일탈행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물론 이에 대한 댓가는 혹독했다.

화가 나혜석의 말년이 어땠던가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나혜석과 함께 대체로 풍미했던 신여성들 - 김일연, 윤심덕 - 모두 말년이 좋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사회가 이들 신여성들에게 가졌던 적대감이 어떤 정도였던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대중에게 이들 신여성들이 외쳤던 남성과 동등한 성적 자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주장들은 상당히 파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뿐 와닿지 않는 얘기들로 여겨졌다. 대부분 빈곤

에 시달리는 서민 대중에게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로 여겨졌던 것이다. 일례로 나혜석과 한때 크게 논쟁을 벌였던 교육 사업가 차미리사의 경우는 여성에게 '자유연애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 독립'이라고 지적하며, 여성들이 마침내 경제적 돋림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면 성적 자유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식민지 시대, 일제에 의한 압박과 함께 서구문물이 문명개화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 땅에 들어오던 시절, 수백 년 왕조는 외세에 의해 막을 내렸고 나라 잃은 백성들은 마치 캄캄한 암흑 속에서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하고 있었다. 그 백성들이 '피지배 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근대적인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나타난 여려 사회현상을 중에서 이러한 남녀갈등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큰 화두가 되는 여성혐오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여성의 독립성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가 비단 여성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는 점에서 말이다. ■

“
우리는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하는 사람만
선별한 운동회도 아니었으므로
우리의 목표는 재미였다.
해방감으로부터 나오는 재미”

우리의 동분서주 는 세상을 바꾼다

글
서한나
청년잡지 보수
(BOSHU)
편집장

마지막 운동회가 언제였더라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BOSHU팀원들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했다.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투포환, 축구경기, 이어달리기, 운동이 좋아서 운동회가 좋았다가보다는. 수업을 안 하는 날이라 좋았다. 축구와 계주를 잘하는 남자애들은 그날만 멋있어 보였다. 반면 이 악물고 달리는 여자애들은 '악바리'처럼 보였다. 깃잎 모양 앞머리를 손바닥으로 누르고 뛰는 애들도 있었고, 가슴이 흔들리는 게 신경 쓰여 제대로 못 달리는 애들도 있었다.

약간 비약한다면, 우리의 기억 속 운동회를 완전히 새로 쓰고 싶어 '여성 운동회'를 기획했다.

잡지 BOSHU팀에 속해 2016년부터 페미니즘 강연 기획, 여성 스포츠 원데이 클래스 등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해오면서 운동 앞에 '다이어트'가 붙지 않은 운동을 원하는 여성들을 자주 만나게 됐고, 그들과 한데 모여 땀 흘리고 악쓰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우리는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하는 사람만 선별한 운동회도 아니었으므로 우리의 목표는 재미였다. 해방감으로부터 나오는 재미.

동분서주 운동회

신청자 마흔 명은 대개 이십 대였다. 팽-하게 맑은데 하늘은 높고 공기는 선선한 최적의 날. 선수들은 동분 팀, 서주 팀으로 나뉘어 운동장으로 입장했다. 운동복을 입은 한 무리의 여성들이 응장한 음악에 맞춰 걷는데, 시작도 전에 기슴이 벅찼다. 운동회 심판을 맡은 FC우먼스플레이 이선희 코치의 구령에 맞춰 준비운동을 했고, 동분 팀, 서주 팀은 주장의 리드에 따라 응원 구호를 정하고 첫 경기를 시작했다.

첫 게임은 '(페)미니게임' 살짝 풀린 몸을 완전히 풀기 위해서 준비한 게임. 코끼리코 열 바퀴 돌고 2m쯤 달린 뒤, 젓가락으로 콩 집어 빙 접시에 다 옮기고, 쪽지를 뽑은 뒤 쪽지에 쓰여있는 사람을 찾아 손을 잡고 콘을 돌아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대개 모르는 사이였는데, 게임이 시작되자 선수들은 각자 자기 팀을 응원하느라 소리를 지르고, 역전하는 장면에서는 하이파이브를 했다. 접수대에서 있을 때 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자주 웃었다. 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연대의 의미를 담아 줄을 넘는 '단체 줄넘기', 우리들의 파워를 보여주는 줄다리기, 차례로 게임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완전히 몸이 풀린 것 같았다.



일필휘지 페미문장대회

여성은 한국을 불태울 준비가 됐다

-민**-

노후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모**-

영웅도 악당도 여자가 해 먹는다

-박**-

큰일은 여자가 조신하게 정치나

-황**-

세상은 우리의 악에 반친 소음에 주목한다

-배**-

체력 자랑했으니 지성도 자랑해야죠

운동과 운동 사이 쉬어가는 코너, 일필휘지 페미문장대회가 시작되었다. BOSHU팀원들은 화선지와 봇, 먹물을 준비해두었고 참가자들은 각자 미리 떠 올려온 문장을 쓰씩 썼다.

심사 기준은 공격성과 비장미. 총 열 다섯 명이 참여했는데 나머지 열 문장은 공격성과 비장미가 차고 넘쳐 여기에 적지 못한다. 가장 비장하고 공격적인 한문장을 뽑아 여성을 위한 섹스토이인 '새티스파이어'를 시상할 예정이다.





이어달리기

미니게임

수세미, 브레이저, 발암물질 생리대를 던져버립니다

이제 화선지와 붓은 걷어버리고, 다시 몸을 움직일 시간. 여성을 억압하는 것들을 날려버리자는 의미에서, 여성들의 삶을 옥죄는 여러 물건을 준비했다.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씻기를 바라며 수세미를, 여성들이 큰돈을 만지기를 바라며 영수증을, 여성들이 더 이상 “라면 먹고 갈래?”라는 말을 듣지 않길 바라며 생라면을, 브라를 하는 게 기본이 아니라 안 하는 게 기본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브라를, 발암물질생리대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생리대를, 여성의 꾸밈노동을 강요받지 않는 세상을 바라며 하이힐과 화장품을, 이외수가 여성혐오 발언을 하지 않길 바라며 이외수 책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안대를 하고 번호를 불렀고, 번호에 맞는 물건을 확인하자 ‘이걸 던지면 되냐’며 즐거워했다. 레이스 달린 브라가 작게 접혀 트랙 위로 처박힐 때는 속이 시원했다.

하이라이트, 축구경기

대학교 체육대회의 피날레는 축구경기였다. 물론 남자들이 하는 축구. 남자들은 체육대회가 아닌 날에도 취미로 축구를 해냈고 체육대회 날에는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났다. 여자들은 운동회 뒤풀이 때 먹을 전과 막걸리를 준비하거나, 관중석에서 축구를 응원했다.

이제 그 운동장에서 우리가 선수로 뛴다. 여자가 뛰는 모습을 여자가 보고, 여자가 공을 차는 걸 여자가 응원한다. FC 우먼스 플레이팅팀에서 7개월간 훈련 받은 선수들이 팀을 나눠 경기했다.

이날 경기를 친관한 한 여성은 “같은 여자가 축구화를 신고 뛰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다. 나도 FC 우먼스 플레이팅 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배워볼까 생각한다”며 들뜬 소감을 남겼다. 1:0으로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은 마주 보고 두 줄로 서서 “수고하셨습니다!” 말하며 악수했다.



질주, 이어달리기

계주의 다른 말은 질주. 열 명의 선수가 전속력으로 뛸 차례다. 시작 선에서 심판이 권총을 쏘면 동시에 출발. 선수들은 신발을 벗어두고 땅을 박차며 뛰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보는 사람을 긴장시키다가 결국 한 명의 선수가 결승선을 먼저 뚫었다. 상대적으로 느린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전달하고 그 선수가 바통을 받아 들고 자신의 길을 전력으로 달릴 때, 이어 달려 완주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했다. 여성들의 전력 질주를 보고, 여성들의 승부욕을 확인하는 게 짜릿했다.

터뜨리고 싶은 게 많아요

시간표에는 없는 순서. 우리들끼리 모였으니 우리들이 하고 싶었던 걸 해야지. 우리는 부수고 싶은 게 많았다. 줄곧 팀 대결을 했지만, 이번만큼은 콩주머니를 던져서 하나의 박을 터뜨린다. 삼분 정도 지났을까. 박에 점점 틈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틈을 겨냥했고 점점 틈이 넓어지며 완전히 벌어졌다. 박 안에서 무언가 흘러나왔다. ‘우리의 동분서주는 세상을 바꾼다’ 현수막이 펼쳐졌고 선수들이 환호했다.

우리는 한나절 동분서주했지만 지치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 성심당에서 빵 트럭이 와서? 새티스파이어를 선물로 줘서? 그것도 그렇지만, 안전한 공간에서 신경 쓸 것 없이 운동만 할 수 있어 좋았다. 우리 팀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전제하는 분위기도 좋았고, 운동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여성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종량제 봉투를 버리려 나갈 때까지도 신났다. 사람들은 함께 뒷정리를 했고, 이제 가셔도 된다고 떠밀어도 몇 번이나 인사를 하면서 헤어졌다. 어떤 체험은 사람을 약간 바꿔놓는다. ■

ME + CO

ME TOO, WE TOO.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GENDER EQUALITY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ipd 국제디자인교류재단

2018 양성평등 디자인 전국공모전 일반부 금상
ME TOO, WE TOO 주혜원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가 발휘됨을 나타낸 작품, '나(ME)가 모이면 '우리(WE)'가 되듯, ME와 WE를 연계하여 나타내고, 나와 우리가 함께하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too로 표현